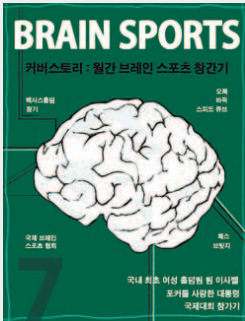


국내 최초 브레인스포츠 전문지 ‘월간 브레인스포츠’ 창간

국내 최초의 브레인스포츠 전문지 ‘월간 브레인스포츠’가 7월 창간호를 내고 브레인스포츠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브레인스포츠 전문 미디어 ‘브레인스포츠투데이’가 선보이는 ‘월간 브레인스포츠’는 2022년 한겨울 아시아게임에서 바둑, 체스, 중국장기 등이 채택됨에 따라 생활 스포츠로서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브레인스포츠 종목들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국제대회와 외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흔히 손과 두뇌를 사용하는 테이블 스



창간호 표지

창간호 표지
위원회(IOC)가 1990년대 후반 공식 스포츠로 인정했다.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둑은 12년 만인 2022년 한겨울 아시아게임에서

포츠 종목들을 마인드 스포츠 혹은 브레인 스포츠라고 한다. 체스, 바둑, 장기 등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체스와 브릿지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90년대 후반 공식 스포츠로 인정했다.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둑은 12년 만인 2022년 한겨울 아시아게임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됐다.

‘월간 브레인스포츠’는 창간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브레인스포츠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기능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스포츠와 차별화되는 두뇌의 활동과 전략, 심리와 확률까지 더해 지성의 싸움, 새로운 형태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e스포츠와 달리 브레인스포츠는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전해 내려온 다양한 게임들로서 한 국가나 문화, 단체,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고 지적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보편적이며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월간 브레인스포츠’가 다루게 될 종목은 바둑, 체스, 장기, 홀덤, 브릿지, 오목, 스피드큐브 등으로 각 종목의 대회 개최 현황과 플레이어들의 인터뷰, 관련 종목 외신 및 국제대회 소개 등으로 채워진다.

브레인스포츠관련 유저는 세계적으로 15억 명으로 추산될 만큼 많은 플레이어를 확보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브레인스포츠 관련 전문 언론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간 브레인스포츠’의 이정섭 발행인(비에스티주식회사 대표)은 “앞으로 브레인스포츠와 관련한 정보전달의 기능은 물론 다양한 협회들과의 협업을 통해 커다란 산업으로 성장시킬 동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도경 객원기자 revolej@hanmail.net

馬 통한 나눔 정신, 언제부터 시작됐나?

김만일과 후손들, 조선시대부터 나눔실천

(조선 선조때 가장 많은 말을 소유한 인물)

240년간 외부 침략 때마다 국가에 조공 고향 제주선 10월마다 ‘의귀리 말축제’ 이수홍 마주는 ‘동물명의 기부’ 1호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 저소득국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코백스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 처



현마공신 김만일 영정

려를 때마다 피어나는 나눔 정신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도 이 같은 나눔 정신으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쓴 현마공신 김만일이 있었다.



국내 동물명의 기부 제1호 경주마 백광과 이수홍 마주. 이수홍 마주는 2009년 경주마 백광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240년간 2만여 두 헌납, 김만일과 후손들

제주도 의귀리 출신인 김만일은 조선 선조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말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 오랜 전투로 인해 전마(戰馬)가 부족해진 조정은 김만일에게 말을 요청했다 김만일은 500마리의 조련된 말을 기꺼이 헌납했다. 이후 광해군 12년, 인조 5년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김만일은 제주에서 기르던 개인 소유의 말 1300여 두를 국가에 바쳤다.

당시 말 한 필은 무려 노비 2~3명에 버금갈 정도로 비싼 몸값이었다. 나라를 위해 정성껏 키운 귀한 말을 아낌없이 바친 김만일에게 조정은 ‘말을 바쳐 공이 있는 신하가 되었다’는 의미의 현마공신(獻馬功臣) 칭호를 내리고 함께 종1품 승정대부의 관직까지 제수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현마공신

의 칭호를 얻은 김만일은 제주사람 중 가장 높은 벼슬에 올랐다. 김만일의 후손들 또한 240년 간 가업을 이어 말을 육성했다. 이들도 약2만여 두에 이르는 지속적인 전마 조공을 통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민족의 역사를 지키는데 힘을 보탰다.

김만일의 현마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의 고향인 제주 의귀리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10월에 ‘의귀리 말축제’를 개최한다. 말퍼레이드, 승마체험, 마차체험 등의 행사를 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주의 마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김만일의 후손들이 운영하는 ‘김만일 기념사업회’는 2017년 한국마사회와 함께 ‘현마공신 김만일 상’을 제정했다. 말산업 발전과 마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8월에는 조선

시대 숨은 영웅인 김만일을 재조명하고 제주의 마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김만일 기념관’의 개관도 앞두고 있다.

●현대판 현마공신, 마주의 동물명의 기부

경마 경주에 출전할 목적으로 말을 소유한 사람들을 마주라고 부른다. 부와 명예의 상징인 마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도덕적 책임과 술탄수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만들거나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기억하기 위해 동물명의 기부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1호 동물명의 기부는 반려동물이 아닌 경주마 백광이었다. 난치병을 이겨낸 불굴의 명마 백광의 마주 고 이수홍씨는 2009년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를 위해 말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후 마주들은 ‘동물명의 기부’라는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국내 동물명의 기부 제2호가 된 경주마 ‘당대불패’(정영식 마주)는 총 5억 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며 ‘기부왕 경주마’로 불리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지금이순간’, ‘강호대세’, ‘인디밴드’ 등 명마들의 동물명의 기부가 이어져 현재까지 100여 명의 마주가 동물명의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마주들은 이밖에도 소외계층 어린이 학습지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지원 등 사회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뻗으며 김만일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고돌핀 소속의 아다아(Adayar) 앵섬 더비 우승 장면. 사진 출처 | 고돌핀 홈페이지

두바이 왕가 웃음 짓게한 ‘아다아’

만년 하위권 경주마의 英 ‘앵섬더비’ 우승
두바이 ‘고돌핀 소속’ 종마 활약에 웃음꽃

영국 앵섬 경마장에서 5일(현지시간) 열린 ‘2021년 더비 스테이크스(G I, 2400m)’에서 경주마 아다아(Adayar)가 우승했다.

경주 전까지 통산 4전 1승, 2위 2회를 기록했던 아다아는 앵섬 더비같은 큰 경주에서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순위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경주 내내 선두의 뒤를 바짝 쫓다가 4코너에서 폭발적인 질주로 추월해 우승을 차지했다.

아다아는 두바이 왕가가 운영하는 고돌핀 소속이다. 두바이의 왕 무함마드가 설립한 마방으로 두바이에 중점을 두고 호주, 일본, 프랑스 등 세계에서 활동하는 경주마를 보유하고 있다. 두바이는 종교적 이유로 국내에서 경마 경주에 배팅을 금하고 있으나 고돌핀은 전 세계 우수 종마들을 확보해 상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고돌핀은 앵섬 더비와 같은 날 미국에서 시행된 삼관마 경주 제3관문 ‘벨mont 스테이크스(G, 2400m)’에서도 소유 경주마 에센셜퀄리티(Essential Quality)가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 명문 마필 가문으로서 이름을 떨쳤다.

한편 앵섬 더비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더비’ 경주의 효시다. 1780년 더비 백작이 창설해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실상부한 대표 경주로 세계대전 와중에도 중단 없이 지속돼 올해로 242화제를 맞았다.

이수진 기자 sujin122@donga.com



말산업 박람회 설치된 말산업 컨설팅 부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말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한국마사회는 5월 20일부터 2021년 말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말산업 종사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개선방안을 상담해준다. 컨설팅 분야는 승마시설 설치운영, 경영·마케팅, 시설·안전, 감습(재활습마) 등이다.

비대면 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게 된다.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승마대회나 말산업 박람회 등에 컨설팅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컨설팅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해 개선점을 확인하고,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다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신청은 온라인, 유선,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마방도 이젠 데이터 뉴딜 시대”…마사회, 지능형 마방 추진

IoT 기반 사업에 6억 4000만원 투입
전용 센서 통해 말 생체 데이터 수집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가 지능형 마방을 실증하고 표준화하는 ‘IoT 기반의 지능형 마방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6억4000여만 원이 투입된다. 한국마사회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더파워브레인스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말은 다른 가축과 달리 개체별로 각자 마방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체별 관리를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말 생산농가들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양계, 양



지능형 마방 통한 데이터 뉴딜 시스템

돈, 한우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마사회의 ‘IoT 기반의 지능형 마방 구축 사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말 생산농가의 효율적인 말 사육관리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경영혁신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능형 마방이 보급되면 관리비 등이 감소해 말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말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사육관리 표준을 구축할 수 있어 생산농가의 노동 부담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지능형 마방 구축을 위해 말의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하는, 말에 특화된 전용 센서를 개발

한다. 센서를 활용해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과 장수 육성목장, 제주대학교 마방에 시범적으로 지능형 마방을 구축해 마사 환경 및 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다.

생산농가는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 한눈에 말과 마사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마사회의 경주 성적, 임상 현황 등 다 데이터와의 상관관계 역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지능형 마방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민간으로 보급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능형 마방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해 수의사, 마주, 조교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마방 환경과 말 상태정보를 맞춤 제공하면 말에 대한 과학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말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스마트팜 사업에서 말 생산농가들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122@donga.com